

조계종 중앙총회, 8대 총림 실사 들어가

총림특위, 3월 24일 첫 회의...4월 말 범어사부터 시작

조계종 8대 총림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격, 이하 총림특위)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4월 말 범어사와 통도사부터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매일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정기회의서 활동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8대 총림 실사는 총림 지정 이후 일부 총림이 총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림은 선·교·율·을 뒤는 종합수행도량으로 1946년 가야총림이 시작돼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 덕숭총림 수덕사에 이어 1996년 고불총림 백양사가 지정됐으

며 2012년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쌍계총림 쌍계사가 한번에 지정됐다. 3개 총림의 지정 당시 일부 사찰의 총림 요건 미비로 보완 사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었으며, 2013년 1차로 총림실사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총림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총림 내 승가대학의 학년당 기준 인원이 미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번 총림 실사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교육원 관계자도 함께 문제해결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댔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 조격 스님은 “지난 15대 중앙총회에서 3대 총림 지정 당시 2년 내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해당 사찰의 요건을 살피고 문제점을 확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비구니회, 조직 강화로 '新 성장동력' 만든다

3월 24일 정기총회서 회칙 재개정 결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이하 비구니회)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 전반기 결의하는 운영위원회, 지역 의결기구인 지회를 정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초석을 놓았다.

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지회 구성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 모두 회원 스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수 있도록 조문 개정됐으며, 문제가 됐던 운영위원회의 임시 총회 대체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입원 선출 및 해임 △주요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해산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 설정 △장기자금 차입 등에 대한 사안이 신설돼 총회 의결 권한이 강화됐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은 강화됐다.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집행부 부실장,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재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총회·운영위원회·지회 활성화
- 집행부 정비·활동 근거 마련
- 중앙총회의원 선출 기준 명기
- 17개 지회 개편·원로회 구성도
- 보문중 스님 특별회원 참여 가능
- 카페 운영 등 회관 문화도 개방

문화센터장 등 당연직 31명과 지회에서 선출돼 올라온 7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출 기준이 불분명한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명시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는 윤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문화재, 법제·행정, 국제·해외 10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집행부도 2실, 7부로 변화했으며, 일상적 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중무회의를 신설했다. 지회도 14곳이었던 것을 17곳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비구니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3월 25일 1층에 오픈한 카페 '메타'는 비구니회관을 일반에 문호 개방한다.

또한, 비구니 사업단(가칭)과 비구니 복지후원회(가칭)을 통해서도 장기 수의 구조를 만들고, 비구니 스님에게 이를 회향하는 순환 시스템을 이뤄진다. 현재, 수요가 높은 커피 판매와 친환경 반찬·먹거리 유통 등이 1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도 이뤄졌다. 명예원로의원은 경순·혜해·광우·진관·범운·경희·정륜·경심·성타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원로의원으로는 명성·제희·묘관·보각·혜운·자광·명수·

운달·수현·범희·불필·자행·제운·자민·혜준·행동 스님이 추대됐다. 또한 비구니회는 보문중 대인 스님을 특별 원로의원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 대해 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조 스님은 “회칙 재개정 요구는 전반적인 비구니 대중 스님들의 목소리였다. 지회 구성을 통해 재개정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총회준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회칙 재개정을 이끌었다”면서 “원로 스님들을 여법하게 모시기 위한 원로회의 구성과 장기사업 승인도 비구니회의 발전과 제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구니회는 종단과 선학원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위한 결의문과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비구니회 대중은 기타 안전 토의를 통해 지난 16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기존 중앙총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JSA에 평화의 佛法 전하지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신속법당 무량수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 현역 군장교 및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사에 따라 무량수전은 82.32㎡(24.9평), 종각 9㎡(2.72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불사비용은 약 9억 원이 소요된다.

윤호섭 기자

“인종차별 없애야 세계 평화 찾아올 것”

사회노동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문 발표

“세계 평화는 내 민족과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민족과 국가를 존중할 때 찾아올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공존과 평등,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라며,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정책도 과감히 개선되길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한국사회 곳곳에 산재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서 희생된 69명의 시민들을 추모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

심을 높이고자 국제연합(UN)이 1966년 제정했다.

사회노동위는 “한국 사회에는 18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이웃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차별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 변경제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등 반인간적인 행위들이 스스럼없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3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총무원장 임기 5년 단임, 추천인단 500명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24일 선출법 제정안 마련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이른바 ‘염화미소법’의 입법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격, 이하 혁신특위)는 3월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사부대중100인대 중공사에 전달할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번 특위의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전체 500명의 추천인단이 복수추천한다. 추천인단은 중앙총회의원을 포함해 법계 중역 이상 승려로 각 교구총회에서 추천한 10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천인단 전체 20%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최종 후

보로 선택되며 이 후보는 갈마위원회의 검증은 거친 뒤 종정 스님의 최종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후보자 검증은 위한 갈마위원회는 법계위원, 재심회계위원, 조심회계위원, 계단위원, 선·율·강원 대표, 중앙신도회 추천인사 등 9인으로

후보추천 후 갈마위원회서 검증
대중공사에 특위 참여, 토론 계획

구성된다. 후보자 검증에는 갈마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정 스님의 추천에서 탈락한 후보는 추천발표 후 1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1일 이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종

정 스님의 추천 후 원로회의는 3일 이내 승인 해야 한다.

특위 위원장 조격 스님은 “특위가 구성되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좋은 안건이 도출됐다”며 “3월 31일 1차 중앙 대중공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 5월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1차 중앙 대중공사에서 장명 스님이 대표로 발제할 예정이며 화평 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염화미소법을 발의한 범등 스님에게도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혁신 특위는 대중공사에서 채택되는 안건을 토대로 5월 말 7차 회의를 열고 6월 중앙총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16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불기2560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위상을 드높인 불자에게 수여하는 종단 내 최고상이다.

추천대상은 불법홍포나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종단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 등이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도 추천 가능하다.

추천자격은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각 부서장 및 산하사찰 주지이다. 추천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5일 까지다.

시상식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723

노덕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운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